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이현정* · 박창일** · 박은숙** · 김향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현정 · 박창일 · 박은숙 · 김향희.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1호, 20-40.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구문능력발달과 용언발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세 낱말을 주로 사용하는 35명의 아동들의 자유놀이에서 자발화를 수집하여 평균낱말길이, 평균형태소길이,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를 산출하였다. 구문구조의 복잡성과 용언어휘습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평균발화길이,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평균낱말길이 및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아동의 구문복잡성과 용언산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총 용언수는 모든 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용언유형수는 집단 2에서만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총 용언수는 집단 2와 집단 3 사이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으나, 용언유형수는 집단 1과 집단 3 사이에서만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용언발달은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용언발달에는 용언의 수를 증대시키는 시기와 이미 습득한 어휘를 활용함으로써 의미습득을 안정화시키는 두 시기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핵심어: 평균발화길이,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 용언발달

I. 서 론

언어는 구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경희, 1989). 구조는 언어의 기본 단위인 단어와 소리, 그리고 이를 배열하는 규칙을 말하여, 의미는 언어가 가지는 내용을 말한다. 음운이나 음절의 습득이 의미의 이해가 없이 모방에 의해서만도 가능한 반면, 어휘의 습득은 단순한 모방에 의해서 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어휘의 의미를 이해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에 있어서 어휘의 습득을 기본으로 삼는다(하길중, 2001). 아동은 두세 단어 발화에서 시작하여, 성인 언어만큼 복잡한 문장으로 발달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렇듯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표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문능력이다. 아동이 구문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언어를 바르게 말하고 사용하는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언어발달에 있어서 의미와 구조를 따

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둘 다 언어발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된다.

이러한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측정하는 아동의 표현 언어발달의 지표 가운데에는 총 낱말수(total number of words: TNW)와 낱말유형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그리고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가 있다(Leadholm & Miller, 1992). 총 낱말수(TNW)는 아동이 얼마나 많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인 발화의 구어 유창성과 관련되며, 낱말유형수(NDW)는 아동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어사용에서 의미적인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Leadholm & Miller, 1992). 일정 시간 동안의 아동 발화를 분석했을 때에, 총 어휘 가운데에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말한 아동이 언어발달에서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배소영, 2001). 또한, 어휘의 다양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서로 다른 어휘의 종류가 일정수로 같다고 할지라도 두 아동간에 의사소통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한 아동이 언어발달이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 혹은 사용 빈도에 따라서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배소영, 2001). 그러므로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와 수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의 구문발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는 평균발화길이는 아동 발화의 문법적 복잡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아동의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문법적 복잡성은 증가한다고 하며(Brown, 1973), 또한 평균발화길이는 생활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아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발화길어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태, 1997; Brown, 1973; Miller & Chapman, 1981). 평균발화길이에선 발화의 총 낱말수를 총 발화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평균낱말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words: MLUw)와 총 형태소수를 총 발화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m)가 있다(김영태, 1997). 낱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글 맞춤법 관련 학자들은 자립형태소(예: 명사, 대명사 등)와 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예: 조사)를 낱말로 보는 반면, 역사문법가들은 어절을 낱말로 보았다(남기심, 2001). 그리고 여기서 형태소란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말의 단위를 말한다(남기심, 2001). 평균형태소길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균발화길이의 척도이며, 가장 세밀한 분석척도가 된다. 그러나 평균형태소길이는 연구자 또는 임상가에게는 유용하지만, 부모나 보육자와 상담할 때는 평균어절길이 혹은 평균낱말길이가 더 적절할 수 있다(김영태, 1997).

아동은 구문능력이 발달하면서 문장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구성되며, 문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서술어이다(고영

근·남기심, 2001). 영어에서는 사물의 동작 또는 상태를 서술하는 것을 ‘동사(verbs)’로 통칭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들을 묶어 ‘용언(predicate)’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언은, 아동이 낱말을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그 습득의 의미가 중요해진다. 용언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용언은 아동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하길중, 2001). 즉, 아동이 용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발화에 대해 반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안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부모가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은 용언이 포함된 발화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배소영, 2002a). 아동은 배가 고프면 ‘맘마 줘’, ‘우유 줘’ 등으로 명사와 용언이 결합한 형태로 구성된 발화를 하게 된다. 즉, 용언의 사용은 자신의 의사를 좀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낱말을 조합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특히 ‘주다, 가다, 앉다, 먹다’ 등의 용언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표현할 수 있는 용언의 수는 활발한 낱말조합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하길중, 2001).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용언을 사용하는 것은 구문구조적인 측면에서 비로소 성인의 말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며, 문장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Tomasello, 1992).

지금까지의 한국어 발달 연구를 살펴 볼 때에, 한국어 어휘의 경우 대개의 선행연구들은 아동들이 명사를 먼저 발달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한다(Pae, 1993; 최은희, 2000). 아동들은 대부분 1세 전후가 되면 첫 낱말을 시작하는데, 이 때에는 ‘엄마, 아빠, 맘마’와 같은 명사가 많다. 이 시기의 어휘 사용은 언어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대표하는 어휘로써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맘마’는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물, 까까(과자), 양말’ 등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아동 자신이 참조하는 바를 분명하게 분화시키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조명환, 1982). 더욱이 Benedict (1979)와 Nelson (1973)은 각각의 연구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첫 50 단어를 문법적 범주에 의해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 때에 50단어 가운데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50%가량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동의 명사 습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2세 이전까지 한 낱말 발화 단계로서 명사 어휘를 주로 사용하던 아동들은 만 2세가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관계를 창출해 낸다. Schmit (1996)는 이렇듯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명사 학습시기가 지나고, 이 때에 엄마들의 말 습관이 사물 자체를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춰지던 것에서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 동반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하였다.

Benedict (1979)와 Nelson (1973)은 행위단어(action words), 수식어, 기능어 등 명사 이외의 분류 가운데에 행위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 14%라고 하였다. 이것은 각각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어휘의 산출 비율에 대해서 모두 명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발달에 따라 변화하여 아이가 습득한 어휘가 100단어 정도가 되면 동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명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한다(Bates et al., 1994). 또한, Choi & Gopnik (1995)은 한국 아동들은 영어 사용 아동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용언의 폭발현상(spurt)을 보인다고 하였다. 용언의 폭발현상이란,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현을 보이던 용언 어휘수가 일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의 아동들이 18개월경에 50여 개의 어휘수를 나타내던 것이 이 시기를 지나면 급격한 증가를 보여 수백 개의 어휘를 말하는 어휘폭발현상(vocabulary spurt)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 것(Hoff, 2001)과 마찬가지로, 한국 아동들에게서는 특징적으로 용언 어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태(1998)는 2, 3세 한국 아동의 97% 이상이 서술어 및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관계를 산출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2세와 3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 아동들의 용언 산출 빈도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아동은 용언의 활발한 습득 및 사용을 보이고 있으며, 용언은 문장을 구성하는 시기와 맞물려 문장 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용언의 사용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인 구문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문능력의 발달과 용언의 습득 및 산출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문구조가 복잡해지고 용언의 발달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는 두세 낱말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들의 평균발화길이와 용언산출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평균낱말길이 및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total number of predicate: TNP)와 용언유형수(number of different predicate: NDP)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구문발달과 용언 어휘습득 간의 관계를 밝힌다. 둘째, 연구 대상이 된 아동들이 평균낱말길이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따라서 용언산출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핀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총체적인 어휘발달 혹은 명사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구문능력과 용언습득 사이의 상관 및 경향성을 밝혀, 각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에 따라 개인적인 발달의 지표가 되도록 하며, 치료실에서의 용언중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 이후 언어장애 아동이 보이는 용언발달 문제에 대해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4세 미만인 동시에 두 낱말 이상의 낱말조합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출현하는 35명의 아동(남: 21명, 여: 14명, 평균 나이: 31.9개월, 범위: 22개월-41개월)으로 정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활연령과 평균발화길이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김영태, 1997; Brown, 1973; Miller & Chapman, 1981), 4세 이후에는 그 상관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De Villiers & De Villiers, 1973; Miller & Chapman, 1981) 생활연령을 4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아동의 정상범주를 규명하기 위하여 김영태(1997)의 기준에 따라 각 생활연령범주(6개월 단위)에 근거한 평균발화길이가 정상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각 아동에게 유아의 언어발달 진단검사(Receptive Expressive Emergent Language Scale; 김영태 역, 1994) 또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검사(Preschool Language Scale; 김영태, 2000)를 실시하였으며, 각 아동은 기타 행동, 정서, 청력 및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독립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검사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녹음하였다. 이때, 보호자와 아동은 분리하도록 하였다. 검사자와의 상호작용에는 인형, 집놀이세트, 레고동물세트, 자동차, 음식모형, 미용놀이세트의 놀잇감을 활용하였다. 놀잇감은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제한 시간 내에 아동이 모든 놀잇감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잇감에 순서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시, Leadholm & Miller (1992)가 제시한 자발화 수집 지침을 따랐다.

녹음에 사용된 기구는 Mini Disk (PANASONIC SJ-MR200)로서 녹음기에 연결된 소형 핀마이크를 아동의 어깨에 달아준 뒤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하였다. 아동과 검사자의 놀이상황의 소요시간은 평균 30분 가량이었으나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작 후 10-15분 동안 의미있는 발화 또는 발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표집을 중단하였으며 그 아동은 대상군에서 제외하였다. 각 아동에게서 수집된 최소한의 발화수는 100발화였으며 30분의 놀이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목표발화수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자-아동간의 놀이를 지속하였다.

나. 자료전사

아동의 발화는 수집 당시의 문맥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자료의 전사는 발화 수집 후 1-2일 내에 검사자 1인이 직접 전사하였다. 전사시 발화구분 원칙 및 낱말 구분 원칙, 형태소구분 원칙은 한국어발화분석(배소영, 2000)의 기준을 따랐다. 전사자료에는 명료발화 뿐만 아니라 불명료발화도 포함하였다.

다. 자료분석

아동의 발화 전사 자료 가운데, 완전 이해 가능하고 ‘네’ 또는 ‘응’의 1음절 대답을 제외한 연속발화 가운데 100발화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네’ 또는 ‘응’의 발화는 아동 발화에 대한 검사자의 명료화과정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었으므로 제외하였다. 한국어발화분석(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KCLA) 2.0(배소영, 2000)을 이용하여 아동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KCLA는 한국어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도록 코딩한 다음 여러 가지 언어발달 지표들을 자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CLA는 기본부, 의미부, 문법부, 화용담화부, 개별코딩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부의 아동이 사용하는 낱말, 형태소, 그리고 문법형태소의 유형과 빈도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배소영, 2002b). 각각의 전사 자료는 전사할 때에 한국어발화분석의 자료 입력 형식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발화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문장부호가 사용된 어휘는 그렇지 않은 어휘와 구분하여 다른 어휘로 인식하므로, 낱말유형수 및 용언유형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료의 입력시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은 채 어휘에 대해 입력수준을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각 아동의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 총 낱말수, 낱말유형수를 산출한 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때 어미의 활용이나 문법형태소의 사용과 상관없이 어간이 같은 것을 같은 종류의 용언으로 계산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아동의 평균낱말길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1은 평균낱말 길이가 1.0초과 2.0이하, 집단 2는 평균낱말길이가 2.0초과 2.5이하로 구성되었다. 집단 3은 평균낱말길이가 2.5초과 3.0이하였다.

라. 신뢰도 검증

발화 샘플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4명의 자료를 임의 선택한 뒤, 언어병리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2명이 아동의 발화를 전사하여, 낱말 및 형태소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자간 일치도는 82-91%이었다.

마. 통계적 검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 각각에 대한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구문발달단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평균발화길이에 따른 용언의 산출

평균발화길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용언 산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1> 참조). 즉, 평균낱말길이 혹은 평균형태소길이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언유형수도 평균낱말길이 및 평균형태소길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분석에 사용된 아동 35명 가운데 최단 평균낱말길이는 1.37이었으며, 최장 평균낱말길이는 2.86이었다.

<표 - 1>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른 산출용언수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r)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
평균낱말길이	.736*	.659*
평균형태소길이	.818*	.711*

* $p < .001$

2. 평균낱말길이에 따른 집단별 용언의 산출

분석한 자료는 평균낱말길이에 의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부록 - 1> <부록 - 2> <부록 - 3> 참조). 각 집단별 아동의 평균낱말길이와 구성 수, 평균생활연령은 <표 - 2>에 정리하였다. 집단 1에 속한 아동들은 15명이었으며, 평균생활연령은 29개월(표준편차 4.29)이었다. 집단 2에 속한 아동들은 10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생활연령은 34개월(표준편차 3.33)이었다. 또한, 집단 3에 속한 아동들 역시 10명이었으며, 평균생활연령은 34개월(표준편차 3.46)이었다.

<표 - 2> 평균낱말길이에 따른 집단별 아동의 분류 및 구성

집단	평균낱말길이범위	아동수 ¹	평균생활연령 ²
1	1.0 < MLU _w ≤ 2.0	15	29 (± 4.29)
2	2.0 < MLU _w ≤ 2.5	10	34 (± 3.33)
3	2.5 < MLU _w ≤ 3.0	10	34 (± 3.46)

¹단위는 ‘명’, ²단위는 ‘개월’, ()는 표준편차

가. 각 집단 내 용언산출

각 집단 내의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의 상관관계는 <표 - 3>과 같다. 집단에 따른 용언산출을 살펴보면, 집단 1에서는 평균낱말길이에 따라서 용언유형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총 용언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536, p < .05$). 또한 평균낱말길이의 결과와 같이,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서도 총 용언수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568, p < .0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집단 1에서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용언의 유형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총 용언의 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집단 2에서는 평균낱말길이에서는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평균형태소길이에서는 총 용언수 ($r = .827, p < .01$)와 용언유형수 ($r = .746, p < .05$) 모두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집단 3에서는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 총 용언수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r = .832, p < .01$).

<표 - 3> 각 집단 내 평균날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른 산출용언수의 상관관계

집 단		상관계수 (r)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
1	평균날말길이	.536*	.463
	평균형태소길이	.568*	.413
2	평균날말길이	.549	.518
	평균형태소길이	.827**	.746*
3	평균날말길이	.338	-.224
	평균형태소길이	.832**	.430

* $p < .05$, ** $p < .01$

나. 각 집단 간 용언산출

집단 1의 아동들은 분석된 100발화 내에서 평균 50.87개(표준편차 14.302)의 용언을 산출하였으며, 평균 20.27개(표준편차 5.637)의 용언유형수를 보였다. 집단 2의 아동은 평균 62.30개(표준편차 19.021)의 용언을 보였는데, 서로 다른 용언의 유형수는 평균 23.80개(표준편차 6.143)였다. 그리고 집단 3의 아동은 82개(표준편차 13.606)의 평균 총 용언수를 보였으며, 평균 29.20개(표준편차 3.425)의 용언유형수를 보였다(<표 - 4> 참조).

이상과 같은 수치를 보인 구문발달단계 간 총 용언수는 ANOVA 실시 결과, 각 집단의 평균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 32)} = 11.967, p < .01$). 또한 용언유형수도 ANOVA 실시 결과, 각 집단의 평균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 32)} = 8.607, p < .01$). 이에 대해 Tur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 용언수는 집단 1과 집단 2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 1과 3, 집단 2와 3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때, 용언유형수는 집단 1과 집단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1과 2, 집단 2와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 5> 참조).

<표 - 4> 각 집단 별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의 평균¹

집 단	총 용언수	용언유형수
1	50.87 (± 14.302)	20.27 (± 5.637)
2	62.30 (± 19.021)	23.80 (± 6.143)
3	82.00 (± 13.606)	29.20 (± 3.425)

¹단위는 '개', ()는 표준편차

<표 - 5> 각 집단 간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의 평균 비교

	비교항목	평균차
총 용언수	집단 1-집단 2	-11.43
	집단 1-집단 3	-31.13***
	집단 2-집단 3	-19.70*
용언유형수	집단 1-집단 2	-3.53
	집단 1-집단 3	-8.93**
	집단 2-집단 3	-5.40

* $p < .05$, ** $p < .005$, *** $p < .001$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두세 낱말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발화길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른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대상과 기준이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언유형수를 아동의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살펴본 연구와, 총 용언수를 아동의 생활연령에 따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최은희(2000)는 13개월부터 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 산출하는 용언유형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용언유형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낱말유형수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언어연령에 따라서도 용언유형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 지표로 삼은 평균발화길이는 생활연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 1973; 김영태, 1997; Miller & Chapman, 1981). 뿐만 아니라, 평균발화길이가 아닌 기타 다른 기준(예: 낱말유형수)과 용언유형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최은희, 2000)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한 기준인 평균발화길이와도 용언유형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김영태(1997)는 한국 2-3세 아동이 사용하는 발화 내의 낱말간의 의미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아동의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용언이 출현하는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총 용언수와 평균발화길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평균발화길이는 생활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므로(Brown, 1973; 김영태, 1997; Miller & Chapman, 1981), 김영태(199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총 용언수가 증가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은 언어의 구성 요소인 구문길이의 증가와 용언 어휘력 발달에 일정 순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달시키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개인의 아동들을 범주화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을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집단 1에서는 평균발화길이가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 총 용언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용언유형수의 유의미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아동이 점차로 단어에서 문장수준으로 발화길이를 늘여감에 따라 문장의 필수구성성분이 되는 용언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용언을 구사하기보다 한정된 용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 용언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용하는 용언의 종류 즉, 용언유형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잇감이 아동의 언어 표현에 제한된 상황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제한된 놀잇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평균발화길이의 증가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산출될 수 있는 용언의 유형은 한정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용언산출 발달이 새로운 유형의 용언을 습득하는 시기와, 이미 알고 있는 용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미를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습득을 안정화시키는 시기로 나누어져서 그 두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평균발화길이가 1.0초과 2.0이하인 집단 1의 시기는 초기에 습득된 몇 개의 한정된 용언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어휘에 대한 자기 이해를 높이고, 어휘를 완전히 습득하여 안정화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이미 습득되어 있는 용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되, 아동 자신이 의사전달의 의도는 있으나 사용어휘가 부족한 경우 의미관계에 의한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동이 의미관계를 사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Miller & Chapman, 1981).

집단 2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용언 발달 양상은 집단 1의 아동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 모두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

럼 평균낱말길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평균형태소길이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이 시기가 문법형태소를 습득하고 어휘의 의미를 조절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Watkins, Rice & Moltz, 1993). 이 시기에 아동은 ‘붙다-붙이다’, ‘먹다-먹었다’ 등의 예에서와 같이 접미사나 과거시제선어말어미 등의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여 용언을 활용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용언발달은 평균낱말길이보다는 평균형태소길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집단 2에서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아동이 이 단계에서 용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총 용언수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언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용언유형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총 용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김영태(1997)의 연구에서 추론하여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용언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용언유형과 상관없이 아동이 사용하는 총 용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총 용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용언이 문장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Tomasello, 1992). 즉, 아동은 구문길이와 늘어남에 따라 두 단어 조합의 의미관계에서 좀 더 발전하여 성인의 문장과 비슷한 형태의 발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총 용언수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용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도를 좀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배소영, 2002a). 초기에 한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 주로 명사를 사용하던 아동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용언을 사용하여 발화를 구성하게 되며, 그 형태에 있어서도 때때로 용언을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본용언+보조용언’의 형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본용언+보조용언’ 형태의 문장 구성은 또한 총 용언수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집단 2에 대한 용언유형수의 연구 결과에서,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 용언유형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이 집단 1의 시기에서 보인 일차적인 어휘습득의 과정을 지나 이차적인 어휘습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는 이미 습득한 한정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어휘 습득의 단계를 지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단 1의 시기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도를 의미관계로서 나타냈으나 집단 2의 시기에서는 구체적인 용언을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의 아동들에서는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의 증가만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평균낱말길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평균형태소길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평균낱말길이보다는 평균형

태소길이가 아동의 어휘발달을 좀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집단 3에서 평균발화길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만 살펴보았을 때에 총 용언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용언유형수의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집단 1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집단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 3에서는 새로운 어휘의 습득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이 이미 습득한 한정된 수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단 3의 시기에 습득된 어휘들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이 용언을 습득하고 사용할 때에 구문발달단계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나 용언유형수와 총 용언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기존의 몇몇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먼저, Choi & Gopnik (1995)은 평균 14개월 아동 9명을 대상으로 그 아동들이 22개월에 이를 때까지 8개월간 종단적 관찰을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 9명 중 7명 아동에게서 평균 19개월에 새롭게 습득된 용언수의 증가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그 연령대에 속한 아동들은 새로운 용언습득 시기에 놓였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아동의 어휘발달연구를 보고한 최은희(2000)는 그 연구 대상을 아동의 총 어휘수에 따라 여섯 군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그 아동들의 생활연령의 범위가 15개월부터 30개월에 속하였다. 그 연구 역시 새로운 용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의해 이 시기가 새로운 용언 습득시기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을 평균발화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행해진 기존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 간에는 아동들이 산출하는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총 용언수를 살펴보면, 집단 2와 3, 집단 1과 3 각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평균발화길이가 2.0초과 2.5이하인 집단 2와 평균발화길이가 2.5초과 3.0이하인 집단 3사이에서 총 용언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총 용언수에 있어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보이는 시기는 집단 2의 시기와 집단 3의 시기의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용언습득 및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아동이 더욱 빈번하게 용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이 비로소 성인의 말과 비슷한 구문구조를 습득하여 발화하게 됨으로써 문장을 완성하는 기능을 가지는 용언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용언유형수를 살펴보면, 총 용언수에서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 즉, 집단 1과 집단 2, 집단 2와 집단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집단 1과 집단 3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평균발화길이와 용언유형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함으로써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용언유형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의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는 집단 3의 시기에 이르러서 그 증가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평균발화길이가 2.5초과 3.0이하에 해당하는 집단 3의 시기가 아동의 용언의 습득 및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단 3에 속한 아동들의 생활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이 34개월(표준편차 3.46)로서 집단 2에 속한 아동들의 생활연령 평균이 34개월(표준편차 3.33)인 것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아동의 용언어휘 습득이 아동의 생활연령의 증가보다는 구문발달단계의 발달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의의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평균발화길이를 중심으로 아동의 용언산출을 비교하였으므로, 의미관계 분석에 따른 아동의 용언사용 능력을 밝힐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엄마, 양말’의 발화에서 보이는 ‘대상-실체’와 같은 의미관계와 ‘엄마, 먹어’에서의 ‘대상-행위’와 같은 의미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 1에 속한 아동들이 어떠한 의미관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집단 1에 속한 아동이 두 단어 조합으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엄마, 양말’과 같이 ‘대상-실체’ 즉, 명사와 명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언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으며, ‘엄마, 먹어’에서와 같이 ‘대상-행위’의 형태에서는 용언의 사용이 관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실체’의 의미관계를 주로 사용하는 아동에게서는 용언의 산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이며, ‘대상-행위’의 의미관계를 빈번히 사용하는 아동에게서는 용언의 산출이 보다 많이 관찰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 1의 아동이 사용하는 의미관계가 용언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이 산출한 총 용언수 및 용언유형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1의 아동이 모두 동일한 의미관계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단계의 아동들이 같은 수준의 용언사용능력을 보이는 아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뿐 아니라 아동발화의 의미관계 사용을 고려한 용언사용능력에 의해서도 그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어휘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낱말길이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의 아동의 대상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대상에 따른 자료 분석에서 각 아동발화의 의미관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된 아동이 가진 의미관계의 종류 및 의미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상이 된 아동들이 해당 단계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좀 더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두세 낱말 발화 시기는 구문구조가 복잡해지고, 용언의 발달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세 낱말 발화 단계 아동을 대상으로 용언의 습득 및 발달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자발화를 통해 평균낱말길이 및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른 총 용언수와 용언 유형수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각 아동의 구문발달과 용언의 습득 및 사용은 동시에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구문발달과 용언의 발달은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선후관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는 평균낱말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평균낱말길이가 1.0초과 2.0미만인 집단 1에서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 총 용언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2.0초과 2.5미만의 평균낱말길이를 보이는 집단 2에서는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서만 총 용언수와 용언유형수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2.5초과 3.0미만의 평균낱말길이를 보이는 집단 3의 아동들에게서는 평균형태소길이의 증가에 따라서 총 용언수의 증가만을 유의미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각각의 단계별 평균 용언수를 살펴보면, 총 용언수에 있어서는 평균 낱말길이가 2.0초과 2.5이하인 단계에서 2.5초과 3.0이하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수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용언유형수는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꾸준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언어발달에서 아동이 구문구조를 발달시켜 나가면서 용언의 용언유형수와 총 용언수를 동시

에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동은 구문발달에 따라 자신이 이미 습득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완전히 익히고 안정화시키는 시기와, 새로운 의미를 가진 어휘를 습득함으로써 양적으로 용언의 수를 증대시키는 두 시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3에 속한 아동의 평균생활연령은 집단 2에 속한 아동들의 평균생활연령과 일치하므로, 아동의 용언발달은 생활연령보다는 구문발달단계에 따라 더욱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한 것과는 달리, 아동의 평균발화길이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군의 연령범위 및 표집의 수도 기존의 연구와 다르므로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아동 용언의 습득과 발달을 조사함에 있어서 구문구조의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초기 언어발달에 나타나는 아동발화의 의미관계는 분석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단 1에 포함된 아동의 용언사용능력이 모두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남기심(2001). 『고교문법자습서』. 서울: 탑출판사.
- 김경희(1989).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영태(2000).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서울: 한솔교육.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2, 5-26.
- 김영태(1998). 한국 2-3세 아동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 의미단위수, 의미유형,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3, 20-34.
- 남기심(2001).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배소영(2000). 『한국어 발화분석 2.0: 활용을 위한 지침서』.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배소영(2001). 언어발달장애의 평가. 『2001 여름 연수회: 아동언어장애』.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배소영(2002a). 한국어 발달. 『2002 겨울 연수회: 아동언어장애』.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배소영(2002b). 언어발달장애의 평가 원리. 『2002 겨울 연수회: 아동언어장애』.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은희(200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 연구: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길중(2001). 『언어 습득과 발달』. 서울: 국학자료원.
- Bates, E., Marchman, V., Thal, D., Fenson, L., Dale, P., Reznick, J., Reilly, J. & Hartung, J. (1994).

-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85-123.
- Benedict, H. (1979). Early lexical developmen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6, 183-200.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S. & Gopnik, A. (1995). Early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A cross-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497-529.
- De Villiers, J. G. & De Villiers, P. A. (1973).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child speech.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 267-278.
-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Thal, D., Hartung, J. & Reilly, J. (199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 Goldin-Meadow, S., Seligman, M. Gelman, R. (1976). Language in the two-year-old. *Cognition*, 5, 189-202.
- Hoff, E. (2001). *Language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 Leadholm, B. J. & Miller, J. F. (1992).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Madiso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Miller, J. F. & Chapman, R. S. (1981).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154-161.
- Miller, J. K. (1981).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experiential procedures: Assessing communicative behavior, vol. 1*. Boston: Allyn & Bacon.
- Naigles, L. R. & Hoff-Ginsberg, E. (1998). Why are some verbs learned before other verbs? Effects of input frequency and structure on children's early verbs use.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95-120.
- Nelson, K. E.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11-34.
- Owens, R. E. (2001).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 Bacon.
- Pae, S. (1993). *Early vocabulary in Korean: Are nouns easier to learn than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University of Kansas.
- Pine, J., Lieven, E. & Rowland, C. (1996). Observational and checklist measures of vocabulary composition: What do they mean?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573-589.
- Schmit, C. L. (1996). Scrutinizing reference: How gesture and speech are coordinated i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279-305.
- Tomasello, M. (1992). *First verbs: A case study of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asello, M. & Kruger, A. (1992). Acquiring verbs in ostensive and non-ostensive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311-333.
- Watkins, R. V., Rice, M. L. & Moltz, C. C. (1993). Verb use by language-impaired an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First Language*, 13, 133-143.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Development of Predicates and Syntactic Ability**

Hyunjoung Lee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Chang IL Park, Eun Sook Park & Hyang Hee Kim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hildren seem to develop the ability to create syntactic forms by learning and using predicates, composed of adjectives and verb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yntactic ability and the ability of predicate production. Thirty-five children who are mainly using two or three words in an utterance (21 males and 14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n age of the children is 31.9 months (range: 22-41 month). Subjects were required to play freely with six sets of toys. After gathering the samples of spontaneous speech, we evaluated the MLUw, MLUm, TNP, and NDP. MLUw and MLUm were computed by 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Version 2.0 (KCLA). TNP and NDP were manually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 significant increase was found in TNP and NDP along with an increase in MLUw and MLUm. The three groups defined in terms of MLUw showed differences. TNP increased successively in each of the three groups, whereas an increase in NDP in MLUm was found only in group II. Moreover,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NP was found only between group II and group III, and that of NDP, between group I and group III.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children acquire language in two successive periods.

Key Words: mean length of utterance(MLU), total number of predicate(TNP), number of different predicate(NDP), development of predicates

-
- ▶ 게재 신청일: 2003년 2월 3일
 - ▶ 게재 확정일: 2003년 2월 19일

- ▶ 이현정 (제 1 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사, e-mail: josephinalee@hanmail.net
- ▶ 박창일 (공동 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e-mail: cipark@yumc.yonsei.ac.kr
- ▶ 박은숙 (공동 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e-mail: pes1234@yumc.yonsei.ac.kr
- ▶ 김향희 (공동 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e-mail: hkim@yumc.yonsei.ac.kr

<부록 - 1> 집단 1의 산출용언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가다	25
가지다	2
갈다	2
(머리)감다	3
갈라지다	1
괜찮다	1
꺼내다	1
꽃다	13
끓다	2
끝나다	2
끼우다	1
나오다	4
내려가다	4
내려오다	2
넘어지다	5
넣다	2
놀다	3
놀라다	1
놓다	1
누르다	1
눕다	8
다르다	2
다치다	1
달다	2
달다	1
돌아가다	1
돌다	1
되다	55
두다	2
뒤집어지다	1
두껍다	1
들다(존대)	1
들리다	1
들어가다	10
들어오다	6
떨어지다	10
똑같다	9
뜯다	2
만나다	1
만들다	9
많다	3
말다	3
(머리)말리다	1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맞있다	10
맞다	2
맵다	3
먹다	39
멈추다	1
모르다	1
목욕하다	1
무너지다	1
무섭다	5
뭍다	2
밟다	1
바르다	5
방귀뀌다	1
배고프다	3
배부르다	3
베다	1
보다	36
부딪히다	4
부서지다	4
불다	2
붙이다	8
(머리)빚다	2
빠지다	4
빼다	3
사랑하다	2
소리 나다	2
섞다	3
쉬하다	4
시키다	1
싫다	7
싸다	3
쓰다	2
아니다	25
아프다	4
앉다	9
알다	3
없다	15
열다	4
예쁘다	4
오다	15
올라가다	4
이기다	1
일어나다	2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있다	80
자다	12
자르다	17
작다	3
잡다	1
전화오다	1
정리하다	3
재미있다	1
줄리다	1
좋다	11
좋아하다	1
주다	38
지나가다	1
찾다	8
치우다	1
크다	6
(탈것)타다	32
태우다	1
트림하다	1
풀다	2
하다	73
힘들다	5

<부록 - 2> 집단 2의 산출용언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가다	44
가져가다	1
가지다	3
간지럽다	1
(머리)감다	4
같다	1
고장나다	2
고치다	3
공사하다	2
괜찮다	1
깜깜하다	1
(잠)깨다	1
꽃다	2
끄다	2
끓이다	2
끼우다	1
나오다	4
내려가다	1
냄새나다	1
넣다	3
놀다	2
놓다	6
눕다	3
다니다	1
땀다	3
닫다	1
답다	2
도망가다	2
돌아가다	1
되다	27
두다	1
(물건을)들다	1
들어가다	3
들어있다	1
따라가다	1
떼다	2
똑같다	8
뜨겁다	1
마르다	1
마시다	1
만들다	7
만지다	1
많다	6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말다	9
(머리)말리다	3
맛있다	3
망가뜨리다	1
맞다	1
먹다	49
멈추다	2
멋지다	2
모르다	3
목욕하다	1
무섭다	6
밀다	1
바르다	3
배부르다	1
보다	22
복치다	2
불다	2
붙이다	4
(머리)빚다	3
빠지다	3
사다	2
사 오다	3
살다	2
샤워하다	1
서다	4
소풍가다	1
손 대다	1
숨다	1
쉬하다	2
싫어하다	1
(~하고)싶다	2
싸다	5
씻다	1
아니다	12
아프다	7
앉다	4
알다	5
없다	7
열다	7
오다	13
울다	1
움직이다	1
일어나다	6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있다	59
자다	11
자르다	16
줄리다	1
좋다	1
좋아하다	8
주다	29
주차하다	1
지저분하다	1
차갑다	1
찾다	1
춡다	1
크다	4
(탈 것)타다	17
태우다	4
파랗다	2
하다	76

<부록 - 3> 집단 3의 산출용언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가다	34
(머리)감다	3
같다	1
걸어가다	1
기다리다	2
깨물다	1
꺼내다	1
꽃다	1
끓이다	1
끼우다	3
나오다	6
날다	1
남다	1
내려가다	1
내리다	1
냄새나다	4
넘어지다	5
넣다	10
네모나다	4
놀다	2
놓다	8
누르다	1
눕다	2
다르다	2
닫다	2
담다	1
닿다	1
덮다	1
데우다	1
도망가다	1
돌아가다	2
돌다	5
되다	49
듣다	1
들다(존대)	3
들어가다	13
들어오다	1
들어있다	4
땀나다	1
떨어지다	4
떼다	1
똑같다	3
똥똥하다	1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뜨겁다	1
뜯다	2
마렵다	1
만들다	5
많다	3
말다	6
(머리)말리다	4
맛있다	2
맛다	11
맵다	1
먹다	61
모르다	8
목욕하다	2
무섭다	15
밀다	1
바르다	7
받다	1
받치다	1
방귀뀌다	1
배고프다	2
배부르다	1
보다	39
부딪히다	2
붙이다	5
붓다	1
비키다	1
(머리)빚다	4
빠지다	4
뿌리다	1
사다	7
상큼하다	1
생기다	2
서다	1
섞다	7
소리나다	2
수영하다	2
식다	1
싫다	4
(~하고)싫다	3
싸다	2
쓰러지다	1
씻다	2
아니다	11

용언 \ MLUw	용언수합계
아프다	5
안다	2
앉다	4
알다	3
없다	23
없어지다	2
열다	6
오다	6
올라가다	6
운동하다	3
웃기다	1
웃다	1
이상하다	3
입다	2
있다	122
자다	5
자르다	11
작다	3
잡다	2
잡아먹다	2
재우다	1
조그맣다	1
졸리다	2
좋다	3
좋아하다	7
주다	27
죽다	3
짧다	3
찍다	2
차갑다	1
착하다	3
찾다	4
축구하다	1
출다	3
치우다	1
커다랗다	1
크다	7
(탈 것)타다	28
풀다	1
하다	66